

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소치로 해석될 수 있다.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 되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매체가 가상공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언론과 인식의 상충이 일어난다. 기존 신문과 방송이 인터넷으로 연장되어 언론의 영역이 확장되면서도 가상공간에서의 신문 방송 또는 언론이 될 수 있는가에 이견이 제기된다. 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형성된 표현의 공간이 사이버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언론”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혼돈이 야기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신문은 언론이 될 수 없다는 논쟁이 가열되면서 언론의 영역 문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 언론의 실험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론 제기와 함께 이제는 인터넷 언론, 또는 사이버 언론으로 공인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왜 언론이 되어야 하는지 타당성의 제시에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이제 “인터넷 언론”이라는 말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지만 어떠한 차원에서 언론으로 규정할 것이며 앞으로 언론 영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 신문이나 방송이 인터넷으로 연장되어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고 인터넷 망이 부가가치 통신의 자격으로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대화방, 토론방, 공공기관의 홍보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양식으로 실험 시대를 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언론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규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공중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중의 보호 활동의 한 영역인 언론 중재의 피해 구제 영역 역시 이러한 영역 설정에 따라 확대 조정 할 뿐 아니라 제도 장치도 개선되어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다.

언론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언론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언론 영역이 달라진다면 언론 중재 역시 달라지기 마련이다. 언론 중재의 성격과 방법 역시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안에 착안하여 (1) 언론의 영역은 어떠한 상태로 계보화 되어 왔으며, (2) 인터넷 언론을 어떠한 근거에서 규정할 것이며, (3) 이러한 언론 영역 확장 시대에 대비하여 언론 중재 활동은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생태구성의 관점

본 발제는 흔히 기존 접근이 시도해온 구조기능적 또는 역사적 접근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태구성적 관점을 적용한다. 전자가 가지는 한계는 보편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 사회가 가지는 상대적 고유성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 생태구성이란 모든 사회문화적 현상은 인간 생활과 함께 생명을 가진 상태로 지속 전승된다는 시각에 입각한다. 매체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 개발하고 실용하는 정도에 따라 생명을 가지고 지속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언론, 출판, 정보 등 본 발제문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개념 역시 언어로서 의미의 계보화 내지 지속되는 상태로 생태가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생태구성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자생 생태와 이식(移植) 생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가 자생 생태이며 외국으로부터 사상이나 문물을 이식해온 경우는 이식 생태이다. 문물은 언제나 멈추어 있지 않고 사회와 시대에 따라 생명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공간을 넘어 확산되는 시공간성이 있기 때문에 현상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하여 양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이라는 말은 이미 한자문화권에서 있어온 말이다. 그러나 중국 또는 일본을 경유하여 서양의 speech, press 사상과 함께 들어오면서 새로운 체질을 갖추어 가게 된 것이다. 언론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 있어 왔으나 서양의 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 새로운 변용상이 성립된다. 외국의 speech, press의 입장에서 한국의 상황을 설정하는 외래적 생태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의 언론이 외래적 특성과 만나면서 어떠한 체성 변환이 있어 왔는가를 자주적 자세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계의 접근에서 중요한 점은 이식되는 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현상을 관찰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 이국적 특성을 수용하여 어떻게 정착하는가에 맞추어 자율성을 제고하는 자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는 계보의 시각에서 설명을 시도하는 점이다. 생명을 가진 것은 계보를 이루어 세대에 따라 번식 성장 변종 또는 사멸의 순환 주기를 가진다. 이러한 현상 자체를 그대로 족보화 하고, 생물학에서 계통도를 그리듯이 사회 내에서 성립되는 현상과 의미를 계보화 함으로써 자연스런 그대로의 의미의 계통을 살릴 수 있다. 사전에서의 의미 규정 시도는 구조적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의미의 색인 체제로 되지만 사회, 문화, 시대의 상대성을 살리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는 개념의 분석에서 추정태와 실용태로 구분하여 계보를 파악한다. 언어의 표현이 성립된다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의 인식이 성립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과거 역사적 사실로 소급해갈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상은 있으나 아직 언어로써 어휘화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실재에 대하여 언어로 명명되어 사용되는 실용태로 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실용태를 근거로 하여 추정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태라 한다. 추정태에는 그 자체 본

질을 잘못 이해하거나 편향된 지식이나 가치관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화기의 신문지는 언론으로 명명되지 않았다. 언론을 구성할 수 있는 매체로 본 것이다. 방송 역시 일제하에서는 언론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해방후 대중 보급이 이루어지고 공중의 여론 수렴 창구가 되면서 언론으로 명명되기 시작했다. 이럴 경우 언론으로 인식이 성립되지 않은 실재에 대하여 그 이후의 실용태 개념으로 유추 규정하여 명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III. 매체의 계보

언론의 영역 설정을 위하여 먼저 언론, 출판, 정보의 관계를 먼저 제기하는 이유는 이들이 매체를 통하여 상호 접합하고 있고 일정한 부분은 오해로 인한 혼돈이 야기된 점도 있기 때문이다.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언론의 영역 규정이 보다 원만하게 된다. 한국의 근대 언론 출판 정보는 모두 개화기 이후 매체를 통하여 성립되지만 개인 또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상당한 기간동안 각성이 늦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정보라는 말은 개화기의 외국 사조 수용과 함께 information이라는 말이 영문으로는 사용된 흔적이 있으나 일제가 “정보”라는 말을 만들어 일반화하는 1920년대가 되기 이전까지는 “통지” 또는 “사정의 전달” 등의 표현으로 모호한 상태로 있어 왔다. 신문 잡지 방송 등 대중매체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동안에 야기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융합 시대에 언론상(言論相)의 설정 문제에 직면하면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고, 언론 관계 법제에서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언론, 출판, 정보의 생태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매체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일이다. 매체가 없다면 어느 것도 가능하지 못하며 매체는 의사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언론 출판 정보를 담는 기능을 한다. 매체는 인간의 지혜 각성, 실용화, 취향에 따라 부단히 새로운 공학기술 요소가 첨가되면서 계보를 이루어 개발되어 왔다.

언론, 출판, 정보와 관련한 매체를 인간의 지혜 각성과 사회의 변동에 따라 다섯 가지로 계보화 할 수 있다. 언론상의 형성 과정을 보면 매체의 종류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언론이라는 말이 사용된 실용태와 사용되지 않았지만 언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추정태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매체는 인간의 표현 활동을 담는 매개 수단이다. 매체란 물리적 의미도 있지만